



‘황금빛 금계국밭’ 거니는 아이들 2일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합수 주변 강변 둔치에 금계국이 활짝 핀 가운데 어린이들이 거닐고 있다. /연합뉴스

### ‘보훈가치 확산’ 장성군, 국가유공자에 명패

호국보훈의달 맞아... 338명 대상

장성군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338명을 대상으로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실시한다. 군은 지난 29일, 독립유공자 류정술(83세)씨 자택을 방문해 행사를 진행했다.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이날 행사에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하유성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마을 주민,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류정술 씨의 조부 류상순 지사는 전남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에서 태어나 1919년 4월3일 전개된 장성군 최대 독립운동인 ‘모현리 만세운동’의 주역으로 활약한 인물이다.

류 지사는 모현리 만세운동 다음날

인 4월4일, 만세운동 중 구속된 마을주민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사거리 헌병주재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어 6개월 간 옥고를 치렀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통해 국가 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보훈의 가치가 전 국민에게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 담양 해동주조장, ‘문화예술촌’으로 탈바꿈

‘그랜드 오픈 국제전’ 전시도

담양의 해동주조장이 1일 새로운 문화예술복합공간, ‘해동문화예술촌’으로 재탄생했다.

앞으로 해동문화예술촌은 멋진 작품이 함께하는 전시관과 더불어 어린이 특화예술교육과 인문학 대화모임 등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그랜드 오픈과 더불어 열리는 국제전 ‘도시 리듬과 예술적 행동’은 23명의 예술가가 참여해 해동문화예술촌의



/담양군청

정체성과 방향을 보여주는 전시로 오는 8월 4일까지 열린다. 문의는 해동문화예술촌에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전남 담양=김태수 기자 ts7080@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2 | 해질 / 19:49

6월 3일 (월) 음력 : 5월 1일

수도권 날씨 29~17°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12/29, 동두천 13/30, 가평 12/29, 파주 13/28, 서울 17/29, 양평 15/30, 인천 17/26, 수원 16/31, 용인 16/31, 평택 14/31, 백령도 14/2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D-40

# 이용섭, 스포츠 외교 강행군

〈광주광역시장〉

중서 2박3일 집중 홍보 활동  
주한외국대사들 잇따라 만나  
선수·응원단 참가 독려 요청  
“숙박·교통 등 편의 제공 최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대회 성패의 최대 요인을 해외 선수단, 응원단, 관광객 유치로 보고, 수영 강국이자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을 찾아 2박3일 간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데 이어 귀국 즉시 주한 외국대사들을 잇따라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장은 31일 브라질, 스페인, 호주 등 3개국 대사들을 만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대회참가를 요청하는 서한문 전달과 함께 수영대회에 선수·응원단이 최대한 참가하도록 독려를 요청했다. 또한 대회 참가선수에 대한 최상 컨디션 유지와 응원단 편의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대사들을 7월 12일 선수권대회 개막식에 공식 초청했다.

먼저 주한 브라질 대사관을 찾은 이 시장은 루이스 엔히키 소브레이라 로베스 대사를 만나 “한국과 브라질은 지구의 반대편에 있어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브라질에는 많은 한국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브라질 젊은이들은 한국의 KPOP 가수를 좋아하는 등 정서적으로 친근한 이웃국가나 다름없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는 스포츠 분야 등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한국과 브라질이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로 이번 광주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왼쪽)수영선수권대회 참가 협조차 스페인대사관을 방문했다.

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많은 브라질 국민들이 관람하고 또 수영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마스터즈대회에 대거 참가해 양국 수교의 의미를 더욱 살리고 우의가 깊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해달라”고 루이스 대사에게 요청했다.

이에 루이스 대사는 “브라질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브라질 정부 및 수영협회에 긴밀하게 협조 요청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시장은 이어 주한 스페인대사관과 호주대사관을 찾아 후안 이그나시오 모로 비야시안 대사와 제임스 최 대사를 각각 만났다.

이 시장은 후안 대사에게 “광주수영대회에 참가 등록을 하면 선수촌 등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제공하겠다”면서 “특히 8월5일부터 시작되는 마스터즈 대회에 수영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후안 대사는 “대사관에서 스페인수영협회에 직접 공문을 보내 선수 등록 마감일까지 3주가 남았으니, 많은 국민들이 대회에 참가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계 출신인 제임스 최 호주대사는 “수영대회에 대해 이미 잘 알고 대회 참가 선수·팀들과 이미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호주 국민들은 물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호주인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수영대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제임스 최 호주대사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대회 배지를 직접 달아주고, 7월12일 개막식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6월3일에도 주한 스웨덴·인도·독일 대사 등을 잇달아 면담하는 등 수영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한편 이용섭 시장은 각국 대사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숙박, 교통편 제공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머무르는 동안 광주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 함평군 “군정공백 최소화” 군수 ‘권한대행체제’ 돌입

대법원 상고심서 당선무효형 확정  
나윤수 권한대행 “행정정상화 총력”

이윤형 전남 함평군수가 지난달 30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 결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가운데, 함평군은 이날 곧바로 나윤수 부군수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했다.

나윤수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함평군과 군민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군정공백에 대한 군민의 우려가 큰 만큼 군청 공직자들을 잘 다독여 조직을 빨리 추스르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군청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오늘 이 군수 낙마로 사포관광지 개발사업, 2022 세계나비엑스포 등 민선 7기 핵심사업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럴 때일수록 500여 공직자 모두가 근무기강을 더욱 엄정히 유

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군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답변에서는 현재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함평 아텔리아 C.C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군입장 변화 여부를 묻는 것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나 권한대행은 “급격한 구조 변화나 큰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리라 본다”며, “어수선한 상황인 만큼 일단은 기존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2020년 국·도비사업은 물론, 현재 중앙부처나 도에서 추진 중인 공모사업 확보에 매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전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호남의병 역사공원’ 유치에 관련 TF팀 구성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함평=봉채영 기자

### 광주광역시

##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유도 나서

광주광역시는 6월부터 70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진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이 떨어져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밀히 대처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고령운전자들이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운전을 그만두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4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다. 신청은 6월부터 11월까지 5개 경찰서 민원실과 전남면허시험장에서 하면 된다.

광주시는 12월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줄 예정이다.

또 올해 교통카드를 받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회에 한해 이월해 12월 이후 반납자와 함께 내년 12월에 추첨한다.

/광주=봉채영 기자